

문제 1

1. 이 문제는 일단 2자비교를 하고, 그 이후 2자비교를 통해 아킬레우스를 보는 대응적 비교 문제입니다.

2. 그리고,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발문 밑에 ‘공감의 정의’입니다. 공감은 ‘상태와, 감정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 때, “(가)의 아이히만의 경우 공감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변호하는 그의 태도는 타자의 감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공감의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유대인들의 겪었을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대응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아이히만은 상태와 감정의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술은 좋지만, 결론이 아쉬운 내용이네요.

3. "이와 달리 (나)에 제시된 시적 화자는 비둘기가 처한 상황에 안타까워 하는 모습에서 공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둘기가 노니던 한 때의 자유의 부재에 대해 안타까워 하며 포스터 속에 갇힌 그들의 답답함을 공감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2번 지적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상황에 안타까워 하지만,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명확한 서술이 없습니다.

지금, 공감x와 공감o로 비교를 하고 계시지만, 발문에서 공감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은 불완전한 대응이고 문제를 푸실 때 이에 대한 사고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네요.

4. “후자의 경우 운명론적 관점에서 모두 동일하므로 공감이 존재 할 수 없다.” 또한 이 전제마저 틀립니다. 상황이 동일하면 공감이라고 정의내렸는데 이에 반대되는 서술을 함으로써 뒤의 대응이 모두 틀린 전제하에 풀려져 나갑니다. 따라서 대응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오류입니다.

5. 전체적으로, 발문과 힌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연세대학교 2012 낭비 2번문제와, 연세대학교 2012 새로움 2번문제의 발문에서의 힌트가 나오는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제 2

1. 문제 2번은 1문단만 읽어도 오답으로 보여집니다.

2. 발문으로 접근해 볼게요 ‘상상’, ‘폭력’, ‘주체’ 의 개념으로 제시문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공감’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공감’에 대한 논지가 나와야 하지만, 이 과정은 3 개념을 제시문에 도입함으로써 얻어지죠. 하지만? 지금 그러한 과정이 없이 자체적으로 ‘공감’의 개념을 그냥 서술해버렸어요. 근거도 없고, 논리도 비약이죠. 따라서 그냥 오답이 되어버립니다.

3. 뒷 문단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또한 1번에서 4번 지적과 같이 잘못된 잘못된 전제하에 쓰여진 답안이므로 첨삭의 필요가 없이 발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